

오정희의 「동경」, 「얼굴」에 나타난 노년의 죽음 문제*

박선애** · 김정석***

목 차

1. 머리말
2. 노쇠, 고독 그리고 죽음: 「동경」
3. 죽음의 문턱에서 고립된 노년: 「얼굴」
4. 맺음말

1. 머리말

오정희는 작품 활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인간의 근원적 존재론 즉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의식의 내면세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탐색해 나갔다. 작가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죽음 모티프’를 사용하여 죽음에 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두 작품에 나타난 노년의 죽음 문제 역시 작가의 ‘죽음 모티프’가 다양하게 변주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 두 작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 제1저자,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품 외에도 등단 초기부터 노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관계」, 「적요」 등과 같은 일련의 노년소설을 창작해 왔다. 이런 오정희의 작가적 이력을 감안해 볼 때 노년소설을 통해 죽음 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몇몇 연구자들 의해 오정희 작품 속에 나타난 노년의 죽음 문제가 연구¹⁾되었지만 대부분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바탕으로 인간 실존의 한계상황만을 살펴보는 데 국한되었다. 이 논의들은 주로 작가가 보여준 소설 미학적 성취와 함께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문제로 죽음을 연구한 것들로서 노년의 죽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부족하다. 한 예로 현대 사회의 죽음 문제²⁾를 오정희의 노년 소설에 나타난 죽음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오정희 작품을 논하면서 미학적 성과 부분을 간과할 수 없지만, 이런 미학적 장치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탐색을 꾸준히 모색해 나갔던 작가의식을 현대사회의 죽음 특히 노년의 죽음 문제를 통해 다양하게 조명해 보는 작업은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년의 죽음은 사회적 기능에 큰 타격을 주지

- 1) 오정희 노년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를 연구한 기존 연구로는 김경수, 2004 「널길 위의 존재들」 『시각』 61호. 김인옥, 2000 「죽음과 재생의 미학-오정희론」 『숙명어문논집』 제3권. 박혜경, 2011 『오정희 문학 연구』, 푸른사상. 성현자, 1989 「오정희 소설의 공간성과 죽음」 『인문학지』 4집. 윤애경, 2007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1권 2호. 조영미, 2006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비극적 인식의 답론」 『우리문학연구』 26집 등이 있다. 김경수의 논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죽음의 실존 상황과 작품의 미학적 측면을 연결시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수는 오정희의 노년 소설에 나타난 죽음이 “자신의 죽음조차 남들에게 인지될 수 없을 거라는 노인들의 두려움”과 같이 재현되며, 노인들의 삶은 이미 남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노인들은 주변의 타인들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경수의 시각은 이러한 노년의 삶 저변에 흐르는 현대사회 노년의 죽음에 대한 고립적이며 개별화된 시각을 밝혀내는 데 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 2) 엘리야스, 부르디외, 크리스 쉘링은 “죽음을 인간의 보편적 문제로서”만 인식하지 않는다. “체현의 근대적 양식으로 인해 죽음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특별한 실존적 문제**”로서, 이는 몸의 개별화와 합리화가 후기 근대사회에서 조직되는 죽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크리스 쉘링, 1991, 『The Body and Social Theory』, (임인숙 역, 1999 『몸의 사회학』(나남출판사, 파주, 제8장 참조).

않아 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인간과 사회는 죽음 현실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인간은 죽음을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으려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양상을 보인다. 죽음이란 단어를 꺼려하며 상대적으로 불안·공포·협오 등을 증가시키는 것은 미지에 대한, 고독에 대한, 애도에 대한, 가족과 친지를 떠나는 데에 대한, 몸이 없어짐에 대한, 자아 통제 또는 능력 상실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리고 퇴행 등과 같은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다.³⁾

그러다 보니 현대사회는 죽음을 금기하는 주제로 여기며 일상생활에서 죽음의 개념을 분리해 놓는다.⁴⁾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더 커져만 간다. 게다가 노년기는 성장일변도의 사고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구조 안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기로서 사회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죽음과 노년에 관한 현대 사회의 관념들은 노년의 죽음 문제에 노년과 죽음을 둘러싼 이중적 부정 의식을 내포하게 한다.

이런 현대사회의 노년과 죽음에 관련된 의식들을 바탕으로 본고는 오정희의 노년 소설에 나타난 죽음 문제를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한 삶의 끝인 죽음에 가까워지는 문턱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노년의 모습들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오정희의 「동경」(1982)과 「얼굴」(1999)은 작가가 스스로도 ‘병마로 노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 받으며 죽음을 향한 고독한 삶을 살았던 부모님의 기억’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듯이, 작가가 실제 부모님의 노화 과정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노년의 일상적 삶과 죽음 문제에 대해 남다른 작가적 관심을 보인다.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7년 동안 직접 부모님의 노화 과정과 죽음을 지

3) 서혜경, 2009 『노인죽음학개론』(경춘사, 서울) 30~31쪽.

4) 임춘식, 김근홍 외, 2007 『노인복지학개론』(학현사, 서울) (죽음에 관한 태도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변화해 왔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죽음이나 임종에 익숙하지 못하는데, 죽음 장소(병원이나 의료시설)의 변화는 이러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켜보았던 가족으로서 또한 창작자로서 노년의 죽음 문제를 작품으로 형상화해 나간 것은 개인적 기억을 창작적 계기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이 두 작품에 나타난 죽음 문제는 노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작가 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그런 가운데 작가는 노년 삶의 진실한 모습에 다가서기 위해 무엇보다 노년의 죽음 문제에 집중하고 탐색하면서 현대사회 죽음의 특성들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에 본고는 오정희의 두 작품을 통해 노부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개인화된 사회라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함께 고독, 질병, 노화의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작품 속에서 죽음의 기억 이미지와 상징과 같은 형식적 요소들이 작품 속에서 노년 인물들이 죽음 문제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노쇠, 고독 그리고 죽음: 「동경」

노인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공존하지만 노년의 죽음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깊숙이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있다. 오정희의 「동경」(1982)에는 노년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 죽음과 그로인해 불안의식 속에 살아가는 노부부가 등장한다. 이 작품에는 노부부에게 경험되는 노화의 체험이 노쇠 현상과 죽음의 이미지로 부각되며 여러 상징물을 통해 그려진다. 노화(육체적 징후)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간 역시 결국 노화의 결과로 죽음을 맞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일상인들에게는 일어나는 문제로 죽음을 바라본다. 그러나 노년기에 지속되는 질병과 노화를 경험하면서 죽음은 현실로 다가오고 그로 인해 복잡한 심경에 빠진다.

작가 오정희 역시 노년에 홀로 남겨진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노년 삶의 사회적 측면, 즉 타인과의 관계가 노인(죽어가는 사람)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죽음은 통제 불가능한 자연 과정이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노년들에게 인간적 유대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동기를 얻었다. 수년 사이 많은 자식들이 저마다 가정을 꾸며 떠나고 늙은 부모님들만 빈 동지처럼 행하게 남아가는 집을 지키고 계셨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노년의 삶을 보고, 노년의 고독이 미구의 죽음이 마음에 사무쳤다. 그 뜰과 햇빛과 소멸해 가는 모든 것들, 피어남 속이 죽음이 주제가 되었다.⁵⁾ (이후 인용문 굵은 글씨, 인용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노년의 죽음 현실을 부정하거나 수용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양면적 태도는 인간이 죽음에 대한 보편성을 인식하지만 자신들의 죽음을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죽음을 둘러싼 기본적인 역설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경」에는 노년 초기에 노화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노년 남성 ‘그’가 등장한다. ‘그’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이 늙고 죽을 것이라는 관념을 극구 부정하고 이에 저항한다. ‘그’는 사회생활에서 매우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로서 자신의 노화에 저항하고 억압해 나가는 과정을 보이는데, 이런 과정은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사회보다 발전된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⁶⁾

작품 속에서 노부부가 노년의 일상 속에서 죽음을 자각하며 발생하는 불안감, 두려움, 공포의 양상은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그’의 경우, 정년퇴직 후 변화된 사회적 지위와 함께 급속도로 쇠락해가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그’의 정년 이전의

5) 오정희, 1995.5 「나의 소설, 나의 삶」 『작가세계』 제25호, 156쪽.

6) 노베르트 엘리야스, 김수정 옮김, 2011 『죽어가는 자의 고독』(문학동네, 서울) 89쪽.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 시청의 하급관리로서 서기일을 하면서 ‘오자’나 ‘약자’를 쓰지 않는 한평생 원칙대로 살아왔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성격과 함께 그의 삶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정년퇴직 후 한꺼번에 일어나는 노화 현상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죽음으로 향하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태도는 노년기에 들어서는 남성들의 보편적 특징이기도 하다. 노후의 쇠락하는 삶과 죽음으로 향하는 노년의 현실에 심한 배반감과 노여움을 갖는다. 한 평생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노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그토록 믿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가치에 회의하고 절망하게 만든다. 노년의 삶 속에 스며 있는 죽음은 ‘그’에게 체현된 자아와 세상에 대해 진실 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의심하게 한다.

남성 노인들의 경우 평생을 직장에 매달려 살아오다가 하루아침에 일손을 놓게 되면 허탈감으로 육체도 긴장과 균형을 잃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작품 속에서 ‘그’에게 찾아온 정년병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그’가 정년 후 하게 된 ‘틀니’처럼 노년의 삶은 이물감과 저항감을 불러오며 삶에 대해 분노감만 가져다준다. 심지어 세상과 소통하는 최소한의 말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틀니’가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노년의 삶이 외부 세계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철저히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죽음 의식에 사로잡혀 죽음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방어적 자세를 보이는데, 먼저 머리 염색하기와 기능이 약화된 위장을 위해 식사 전 산책하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잇몸으로 인해 ‘틀니’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산책 역시 지팡이를 짚고 서야만 가능하다. ‘그’는 자신의 쇠락해 가는 모습에 점점 깊게 절망한다. 정년으로 인해 사회적 자아도 상실되고 또한 신체적 노쇠로 죽음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 몸으로 체험해 나간다. ‘그’의 일상적 삶은 공포에 가까운 무의미함 속에 빠져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노년 현실에 맞서 생명에의 강한 집착을 보인다. 이웃집 계집아이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웃집 계집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들락거리는 것을 허락한다. 계집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것을 따라 훑내내본다. 자신의 무력한 삶에서 유일한 탈출구로 삼는다. 그러나 아이의 만화경을 훑쳐 아이와 같이 만화경을 들여다보지만 “만화경 속의 조화는 현란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았다.” 만화경 놀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을 품지만 ‘빠른 속도로 분열하고 변식해 가는 병원균’으로 인식되며, 소멸해 가는 자신의 현실에 더욱 좌절할 뿐이다. 이제 일상의 모든 것들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삶의 자극도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이웃집 계집아이의 일상은 ‘생명’과 ‘생성’의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의 무모함이나 폭력성까지 보여준다. 아이는 어려서 받아야 할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넘치는 생명의 에너지를 뿜어대는 존재이다. 특히 아이의 골목안 자전거 타기와 같은 행동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소통해 나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골목 안 산책은 세상과의 단절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다. 아이의 도발적인 자전거 경적 소리와 자신을 둘러싼 집의 정적은 이러한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와 ‘아내’의 일상적 삶은 무료함과 무기력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어 있다. ‘그’의 의식은 온통 죽음에 대한 지각으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 예로 ‘그’는 아내의 교회 교인들 심방이 취소되자 그들의 점심으로 반죽해 놓은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가 간이 맞지 않자 노여워한다. 아내는 노화로 인해 미각 기능이 손상돼 음식의 맛을 제대로 맞출 수 없고, 자신은 ‘틀니’로 인해 맛에 대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져 식생활조차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틀니’로 인해 맛이 주는 일상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자 우울감에 빠지고 만다. 작품 속에서 ‘틀니’는 노화의 결과로서 소멸해 가는 노년의 삶 즉 죽어가는 것의 상징

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점심 식사 후 노년에 반복적으로 해온 낮잠의 가수 상태에서 유사 죽음 체험을 하게 되고, 죽은 아들 기억이 ‘한 조각의 거울’로 표상되며 ‘그’의 죽음 의식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져든다. 잠은 가수 상태로서 죽음을 상징한다. ‘그’는 가수 상태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며 죽음의 징후들을 보여준다. 잠에서 ‘그’는 죽음으로 향한 어둡한 긴 회랑을 걸어가는 느낌을 갖게 되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의식만이 생생한 가운데 아내의 죽음 공포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죽음 체험을 경험한다. ‘그’의 환상 속에서 드러나는 과거 아들의 죽음 기억을 살펴보다도, 아내가 죽은 아들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죽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서서 죽음과 공존하는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모습과 사뭇 다르다.

머리맡에 맥을 세워두고 어쩌면 그에게 최면을 걸 듯 느릿느릿 낮게 읊조리는 아내의 말소리에 손을 잡혀 그는, 더러는 어슴푸레 떠오르는 시간 속을 자꾸 걸어간다. 그것은 마치 감광제가 고루 발리지 않은 필름과도 같다. 어느 부분은 저 홀로 발광체인 듯 환히 빛나며 뚜렷이 떠오르고 어느 부분은 아주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굳이 잊혀진 것을 되살리고자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은 늙은이에게 주어진 보잘 것 없는 특권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언젠가 가보았던 박물관의 전시실 같기도 했다.

그곳은 토우(土偶)나 동경(銅鏡) 따위 죽은 사람들의 부장품들만 진열한 방이었다. 땅속에 묻혀 천 년 세월을 산, 이제는 말끔히 녹을 닦아낸 구리거울을 보자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죽은 옛사람인 듯 느껴졌었다. 관람객이 한 명도 없이 텅 빈 전시실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어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어둡고 녹녹한 회랑을 걸어 나오며 그는 잠깐 스쳐 간 괴이한 기분에 변명하였다.

영로를 묻었을 때 그는 그가 묻고 돌아선 것이, 미쳐가는 봄빛을 이기지 못해 성급히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아니라 한 조각 거울이었다고 생각했었다(91~92 쪽).⁷⁾

이 작품에는 다양한 거울이 등장하는데, ‘생명’ 혹은 ‘생성’의 의미로 유년의 만화경이, 반면에 죽음이나 죽음 기억의 이미지로 ‘한 조각 거울’ 즉 ‘동경’이 그것이다.⁸⁾ 만화경의 유리 거울과 죽은 이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구리거울은 삶과 죽음의 의식이 투시되어 있는 상징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만화경을 통해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삶과 죽음을 분리된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경’은 옛사람들의 무덤 속에 넣었던 부장품 중의 하나이다. ‘그’가 박물관 매장문화재 전시실에서 본 시신의 부장품인 구리거울인 ‘동경’이 가수 상태에서 환영으로 나타나며 ‘그’에게 죽음 의식만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거울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사물이다.⁹⁾ 이 작품에서는 먼저 죽음의 상징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거짓이 아닌 실상 또는 진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거울은 노쇠한 ‘그’와 아내의 신체를 비춰주고 자각하게 하는 매개 구실을 하며 노년의 진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진실 즉 인간 존재의 본래적 의미인 삶과 죽음에 관한 진실을 의미한다. 거울은 바로 인간의 존재론적 성찰과 자각을 상징한다. ‘한 조각의 거울’로 각인된 아들 영로는 죽음이란 의미에선 ‘동경’의 이미지를 지니지만, 노부부의 기억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 자신들을 비추는 거울 이미지로 기능¹⁰⁾한다. 이렇게 거울 상징을 통해 작가는 삶과 죽음을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음을 드러낸다.

거울 상징 외에도 ‘그’와 아내가 거주하는 집과 뜰에 대한 공간 묘사는 노년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깨닫게 한다.

땅속에 갇힌 아우성을 들으려는 시늉으로 수곳이 귀를 기울이며 나무를

7) 최원식 외 엮음, 2007 『20세기 한국소설-오정희 <동경>』(창작과 비평사, 서울) 을 텍스트로 삼음
 8) 이재선, 1989 『한국문학주제론』(서강대학교 출판부, 서울) 94쪽.
 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2006 『한국문화상징사전』(두산동아, 서울) 43~48쪽.
 10) 이병순, 2002 「죽음의식을 통해 「동경」 다시 읽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예림기획, 서울) 230쪽.

바라보는 사이 무성한 나뭇잎은 편편이 떨어져 내리고 메마른 가지만 섬유질로 남아 파랗게 인(燐)처럼 타오르며 자랑스럽게 가지 뻗었던 자리는 이윽고 냉혹한 죽음만이 떠도는 공간이 된다.¹¹⁾

‘그’는 노년기에 들어서서 하루하루 노화로 인해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로 점점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와 우울감에 빠져든다. 노년기 죽음의 전망은 인간이 자신의 몸과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의 토대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가정들조차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의심케 하여 현실감각을 급격히 손상시킨다.

이렇게 ‘그’에게 노년기의 죽음은 사회적 문제로서 “사람들이 체현(體現)된 자아와 세상에 대해 진실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의심하게”¹²⁾ 만든다. 그리하여 ‘그’는 노년의 일상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직까지 자아를 돌아보고 이전의 삶과 통합해 나가는 모습¹³⁾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 ‘그’는 현재 경험되는 노년의 무기력과 죽음에 대한 불안의식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 자세만 견지할 뿐이다. ‘그’가 이웃집 계집아이에게 보인 관심 역시 진정한 세상과의 소통이 아닌 죽음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서 진정한 인간적 유대와 거리가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그’의 이러한 모습과 달리 ‘아내’는 노년의 삶을 죽음과 밀접한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 ‘아내’는 과거의 죽음 기억을 떠올리며 현재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수용해 나간다. 20년 전 죽은 아들 영로의 기억과 죽음을 앞두고 악몽에 시달리다 무덤에 ‘맥’을 넣어 달라고 유언을 했던 조부의 기억을 떠올리며 일상의 시간을 소비해 간다.

“참 이상하죠 난 요즘 자주 죽은 사람들 생각을 한다우. 꼭 아직도 살아

11) 최원식 외 엮음, 2007 『앞 책』, 79쪽

12) 크리스 실링, 1999 『앞 책』, 254쪽.

13)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최종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죽음을 두려움 없이 직면하게 되면 자아통합을 이루어야 함(에릭슨 외, 한성열 편역, 2000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학지사, 서울) 참조)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생전의 일이 환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나지 않는 희미한 꿈 같아요. 당신은 신 살 때, 마흔 살 때를 기억하세요? 난 통 그때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난 아무래도 너무 오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뜰 손질도 이제 힘이 들어요. 하지만 하루만 내버려둬도 아귀처럼 자라나…… 요즘 같은 계절엔 더 그래요.”¹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조차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유추되고 상상되는 죽음의 가능성일 뿐이다. 모든 존재에게 죽음은 언제나 타인의 죽음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노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다.

‘아내’는 이미 20년 전 사랑하는 아들 영로의 죽음으로 간접 죽음의 체험을 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한국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¹⁵⁾이란 인식과는 멀다. ‘청대 같은 아들’ 영로가 죽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연구하는 이들도 죽음 수용에 있어 연령보다는 한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아내’는 과거 아들의 죽음 기억 속에서 살아가며, 남편인 ‘그’에 비해 죽음에 대한 강한 부정이나 절망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죽음을 수용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뜰에 피어 있는 작은 꽃이나 사소한 것들에 강한 애정과 집착을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 또한 ‘아내’는 남편과 달리 노년의 일상 속에서 세상과 진심을 다해 소통해 나가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들 바탕에는 과거 아들의 죽음 기억이 늘 연결되어 있다. 수도검침원 청년에게 관심을 보인다는지, 교회 교인들과의 교류도 신앙심이 있

14) 최원식 외 엮음, 2007 『앞 책』, 97쪽

15) 김미혜 · 권금주 · 임연옥, 2004 「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2호, 195쪽. (‘좋은 죽음’에는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 등이 해당됨)

어서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이다. 즉 아내의 세상과 소통 행위는 과거 죽음 기억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아내의 노년 삶 속에서 20년 전 죽은 아들의 기억이나 죽음에 임박해 나쁜 꿈으로 괴로워했던 조부의 죽음 기억은 그 어떤 과거 기억보다 생생하게 떠오르며 노년의 삶과 죽음의 공존 양상을 보여준다.

이런 과거의 죽음 기억과는 대조적으로 아내의 일상 속에서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남편의 과거는 잘 기억나지 않고 그 세월이 꿈처럼 느껴진다. 아내는 현재 자신에게 중요한 감정적 의미가 큰 ‘죽음’에 대한 기억만을 되새김질하고 있다. 쓸모없게 된 밀가루 반죽으로 나쁜 꿈을 모조리 잡아먹는다는 ‘맥’을 무의식적으로 만들며 죽음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는 행위가 이를 대변한다. 밀가루 반죽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노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는 ‘맥’으로 죽음의 상징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작가는 노년에게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모습을 일상생활을 통해 실감나게 표현한다.

‘아내’는 신체적 노화 현상의 하나인 ‘호호백발’도 남편처럼 염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결국 아내의 노년의 삶은 남편인 ‘그’와는 달리 만성적인 삶과 죽음의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의 노년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직면에 있다. 그리하여 때로는 외로움,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종종 표면화 시킬 때가 있다. ‘아내’ 역시 그동안 비교적 죽음을 잘 수용해 나갔던 모습과 달리 작품 말미에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감으로 분출한다. 이웃집 계집아이와의 극한 대립이 그것이다. 이웃집 계집아이는 아내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말해도 거울 장난을 통해 노년의 일상 속에 억눌려 있던 죽음에의 강박을 표출하게 만든다. 아이는 거침없고 저돌적인 행동을 해나가며 생명력의 무모함을 드러낸다.¹⁶⁾ 이

16) 장소진, 2007 「내쳐진 노년, 떨칠 수 없는 노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7집, 343~344쪽.

런 모습을 보며 아내는 죽음의 공포 앞에 울부짖는다. 아내의 죽음 의식에는 20년 전 아들의 생명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¹⁷⁾에 의해 빼앗겼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 이런 아내에게 아이의 도발적 행동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결국 아내의 죽음 수용 자세는 노년기 자아통합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심리적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내에게 거울은 자신의 초라한 노년을 반추하게 하고 죽음 불안을 강화시키는 사물인 것이다. 아내의 죽음 불안의식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표현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애정을 갖고 보살피던 뜰에 핀 꽃을 함부로 꺾거나 거울 장난으로 자신의 호기심을 즐기는 생명의 폭력성 앞에선 과거 죽음의 기억들과 만나 공포감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노부부의 일상 속에서 이웃집 계집아이를 남편은 생명감으로 충만한 아이를 호기심 있게 관찰하며 죽음에 대한 방어적 기제로, 아내는 자신의 삶에 소중한 것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동에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수용 자세로 이어져 나타났다. 하지만 여름날 늦은 오후 아이의 거울 장난을 통해 이런 죽음에 대한 양면적 태도는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합일되기에 이른다. 아이의 거울 장난은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즐거움과 호기심의 놀이이지만 일상을 소멸의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는 노부부에게는 죽음으로 치달는 행위로 보이는 것이다. 아이가 하는 거울 장난의 빛을 ‘땅 속에 묻힌 거울 빛의 반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죽음에 저항하고 두려움으로 거부해도 궁극적으로 노년의 삶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죽음은 어쩔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작가 오정희는 아이와 노부부의 삶을 강렬한 대비를 통해 노년

17) 작품 창작 시기로부터 20년 전 봄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 ‘여드름이나 짙 나이에 세상을 바꾸어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란 문구를 보면, 4.19 혁명 때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의 일상적 삶이 죽어가는 과정으로 정적만이 맴도는 변화나 역동성에서 떨어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부부의 노화와 죽어가는 과정은 한 평생 부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성격과 인생에 대한 철학, 특정한 병, 사회적 환경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 형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즉 수용하는 자세도 일상적 삶을 통해 다르게 재현되고 있다.¹⁸⁾ 죽음에 대한 관념도 그로 인한 두려움도 개인의 과거 경험들과 함께 차이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작품 결미에선 작중인물들이 노년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인간 실존의 보편적 한계상황으로 ‘죽음’은 불가피한 것, 공포스럽지만 맞닥뜨려야 할 죽음과의 동화¹⁹⁾로 그려진 측면이 더욱 강하다.

이처럼 오정희의 「동경」에는 노년의 죽음에 대한 불안의식과 두려움을 기존의 작품들에서 ‘죽음’을 형상화하며 보인 인간의 실존적 차원으로 그리고 있지만, 이런 차원들과 함께 작품 전반에 현대 사회에서 고립된 채 노화와 죽어가는 과정을 홀로 견뎌내고 있는 노년들의 고독한 모습이 죽음과 생명의 선명한 대립적 이미지와 상징물들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가 노년에게 늙음과 죽음을 정태적 상태로 평가하며 변화와 성숙의 한 과정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도 작품 속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태도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작품 속 노부부는 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죽음을 포함한 노년의 삶을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해 나가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면서 수동적 자세로 정립해 나갈 뿐이다. 이는 산업화된 현대사

18) 노베르트 엘리아스, 2011 『앞 책』, 78~79쪽을 보면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종」에 나타난 두 인물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죽는 방식 간의 연관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금은 도식적이지만 작품 속에 나오는 상인처럼 「동경」의 ‘그’ 역시 삶, 생존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내’는 작품 속의 하인처럼 일찍이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으며 삶이 고통과 괴로움, 억압이었기에 묵묵히 죽음을 수용하며 과거 사랑했던 이들의 죽음 기억에 기대어 죽음을 준비한다.

19) 심재호, 2011 「하이데거 철학으로 본 오정희의 <동경>연구」 『국어문학』50집, 107쪽.

회에서 노년의 죽음을 개별적 주체의 문제로 규정하며 개인화된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노화와 노년의 죽음 문제가 주변 즉 사회 안에서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노년만의 고독감과 죽음에 대한 자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3. 죽음의 문턱에서 고립된 노년: 「얼굴」

노년에게 죽음이란 갑작스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삶의 한 과정이다. 노년기의 죽음이란 노년기 이전의 어떤 다른 시기보다 삶의 전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 노년은 자녀가 독립하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또한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죽음을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 사회화되는 과정’²⁰⁾을 거친다. 노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운명이 아니다. 곧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년 현실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앞의 「동경」에서보다 「얼굴」에 이르면 사회적 상황이 죽음과 노년의 삶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여러 독특한 특수성²¹⁾ 가운데 개인화된 사회의 소외된 노년과 그들의 고립된 죽음의 양상이 「얼굴」에는 죽음 이미지와 상징, 그리고 죽음을 수용해 나가는 자세에 더욱 강렬하게 반영되어 있다. 현대 사회는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들에게 주변적인 관심밖에는 없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는 죽음이 공개적이었으며,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적이었다. 일상에서 죽음의 장면은 친숙했고 죽음과 관련된 의례와

20) 김수영 외, 2009 『노년사회학』(학지사, 서울) 235쪽.

21) 노베르트 엘리아스, 2011 『앞 책』, 61~75쪽. (현대사회에서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네 번째로 이 사회가 고도로 그리고 특수한 유형으로 개인화된 사회라는 점을 든다.)

장소도 일상으로부터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근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동일한 모습을 띠지 않으며, 노인과 같이 죽어가는 자들은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있다. 이렇게 현대 사회의 노년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보는 관점을 취하여 늙는다는 것을 알듯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²²⁾ 이는 후기 산업사회로 갈수록 노화와 죽음에 대해 타자화 된 시각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엔 죽음이 우리의 신체를 파괴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없애 버린다는 초역사적인(생물학적) 요소가 전제되어 있다.

「얼굴」(1999)에는 「동경」의 노부부의 노화 과정이 십여 년에 걸친 노년기를 거치며 만성적 질병으로 변하고 죽음의 단계에 더욱 가까이 서 있으며, 이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그려진다. 작품 속에서 노부부의 죽음에 대한 예견 방식과 죽어가는 실제 상황에서의 행동들이 이런 현대 사회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동경」의 ‘그’가 「얼굴」의 ‘그’에 오면 지속되는 노화로 질병을 얻어 쓰러진 후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며 죽음을 맞게 되는 시간의 연속성이 확인된다. 그야말로 「얼굴」의 ‘그’와 ‘아내’는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태이다. 작가가 「동경」에서 노년 초기를 살아가는 부모님 모습에 중점을 두어 형상화 했다면, 「얼굴」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아버지 모습을 그려내며 노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한층 밀도 깊게 다가선다. 여기서 작가는 노년의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문학적 기억으로 형상화 하면서 ‘회상기억’을 주로 서술 기법으로 사용한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근 십 년 이상을 누워 지내셨던 아버지는 만년에 이르러 자주 누군가 문밖에 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분명히 감지하고 계신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짐짓 아버지가 오랫동안 누워 계시던 자

22) 시몬느 드 보부아르, 1979, 『La Vieillesse 1』 (홍상희 역, 1994 『노년2』(책세상, 서울)) 223쪽.

리에 누워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을 통해 하늘이며 나무며 날아가는 새들을 보았고 오래된 집의 쇠아기는 소리, 바다 위의 유명선처럼 음산하게 떠도는 소리를 들었다. 그 누운 자리를 지나갔던 십여 년의 세월을 보고 느꼈다. 이 소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홀로 두고 외출했던 어머니가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밤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셨을 때의 악몽 같은 상황이 모티프가 되었다.²³⁾

위의 인용에서 보듯 작가의 개인적 기억 속에서 죽음의 이미지는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나 인간 존재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작가가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노년과 죽음의 이미지에 기대어 죽어가는 노년을 그려내고 있다. 오정희 역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듯이, 자신의 내부 세계가 타인들 즉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여긴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 사회의 외로움과 고립감 같은 정서가 죽어가는 사람의 인성 속에서 드러남을 「얼굴」의 ‘그’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다. ‘그’의 죽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노년의 죽음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의 죽음조차도 남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²⁴⁾으로 그려진다. ‘그’의 고립된 죽음 양상은 현대 사회가 살아있는 몸만을 중요시 하며 몸의 소멸을 의미하는 죽음을 상징적 가치의 하락으로 보는 데에 연유한다. 그러다보니 노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년들에게 죽음이란 자아의 완성이 아니라 궁극적 종말로서 불안의식과 공포감을 갖게 한다.

「얼굴」에 나타난 노부부의 일상적 삶은 거의 모든 인간적·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차단되어 암울하고 고독하기 그지없다. 죽어가는 자들의

23) 오정희, 「자술 연보」, 2007 『오정희 깊이 읽기』(문학과 지성사, 서울) 521~522쪽.

24) 김정수, 2004 「앞 글」, 354쪽.

고독감은 과거 죽음의 기억 이미지를 통해 더욱 절실하게 재현된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뇌혈관이 터져 반은 살아있고 반은 이미 죽음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신체 기관 중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겨우 한 손뿐이다. 그야말로 죽음을 살아있는 상태의 종결로서 죽어가는 과정이 끝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나마 ‘아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전하지 않은 ‘그’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는 아내가 아니면 일상 세계와 소통이 불가능하며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곧 죽음에 이를 것이다. 아내는 노년의 배우자가 다른 관계의 타인들보다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집과 방의 묘사에서도 무너져가는 ‘그’의 육체와 죽어가는 자의 고립감을 섬뜩할 만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한다. 두 공간은 일상의 정적과 함께 ‘그’의 노쇠한 육체 그리고 무기력하고 마비된 노년의 삶을 죽음의 이미지로 그려낸다.

아내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균열이 간다고, 자꾸 주저앉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때마다 그는 집이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속으로 대꾸하곤 했다. 그의 집과 같은 집장수의 손으로 지어진 옆집을 헐 때 망치질 몇 번에 지붕이 그대로 내려앉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몇 십 년 몸담아 살아온 곳인데 그렇게 맥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게 다 비행기소리에 멍들고 삭아서 그런 거라는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²⁵⁾

작품 속에서 공간은 인물이 세계에 대해 갖는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고 인물이 대결하는 세계의 실체로서 그것을 통해 독자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집과 방안은 생동적인 가

25) 오정희, 1999 「얼굴」 『작가세계』(세계사, 서울) 이하 인용은 같은 텍스트로 한다.

죽 공간이 아니라 암울하고 절망적이며 사회와 소통할 수 없는 차단된 공간으로 묘사된다. 단조로운 일상과 무료함이 존재하는 질식할 것 같은 공간이다. 노년의 삶은 낡아가는 집에 비유되고, ‘부엌과 천장, 벽 틈에서 유난히 쥐들이 끓는’ 공간에서 작품 속 노부부는 윤패된 삶과 고독한 죽음을 기다린다.

‘그’에게 이즈음 찾아오는 일상의 변화란 만성적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유년시절 죽음의 체험에서 망각(은폐)되었다가 꿈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죽음의 ‘회상기억’이 전부이다. 어렸을 적 저수지에서 연날리기 놀이를 하다 실제 체험했던 죽음 기억이 ‘회상기억’으로 상상과 결합되어 ‘얼음 밑의 얼굴’ 환영으로 재구성된다. 또한 어렸을 때 ‘그’가 좋아했던 삼촌에 대한 기억도 ‘그’의 ‘회상기억’ 속에서 되살아난다. 삼촌은 서출로 태어났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으며 손재주가 남달라 ‘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에게 이러한 ‘회상기억’들은 그의 내면세계를 심하게 동요시킨다. 과거 얼음판에서 체험했던 유사 죽음의 기억과 자신이 좋아했지만 집에서 환영받지 못해 가출했던 삼촌을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 오렐 것’이라고 인식하며 ‘그’의 기억 속에서 존재의 흔적으로 다시 되살린다.

보통 노년은 과거 기억 중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 빠져든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감정적인 의미가 있는 몇몇 주제들을 되씹는다. ‘그’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과거 유년시절 경험했던 죽음 기억과 삼촌과의 추억을 반추하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출구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죽음의 ‘회상기억’들은 ‘은폐된 기억’²⁶⁾으로서 생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단계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의식을 반영한다. 현재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 유년시절의 죽음 기억이나 삼촌에 대한

26) 작품에 나타난 회상기억들은 ‘은폐 기억’으로서 작가 자신이 체험했던 죽음을 앞둔 노부 모님에 대한 개인 기억을 가지고 문학적 기억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문학적 장치들이다. 프로이트는 문학적 기억들은 대부분 작가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변학수, 2008 『문학적 기억의 탄생』(열린책들, 서울) 95쪽).

기억을 그의 심리적 상황에 의해 왜곡하고 변질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억 속에 나중의 느낌이나 생각이 들어가고 상징이나 은유적 관계를 형성한다.²⁷⁾ ‘그’의 꿈 속에서 재현되는 죽음의 기억들은 현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미지와 자신의 삶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삶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얼음 밑의 얼굴’로 기억되는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이미지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삼촌에 대한 기억은 자신이 살아 온 삶에 대한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생애 과정 속에서 은폐되었던 기억을 꿈속에서 자주 되살리는 것도 무의식 공간에서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볼 수 있다. 프로이트도 인간의 인지와 인식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 그것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고, 회상을 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²⁸⁾ 이렇게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과 환상은 한 인간이 죽음에 근접해 있을 때 그 사실에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평온하게 기다리지만 다른 이들은 죽음에 대해 강하고도 지속적인 공포를 가진다. 하지만 이런 환상도 죽음에 아주 근접해 있을 때에는 약해지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식 속에 적나라한 상태로 들어오고 그것은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 된다. 병마와 노쇠로 인해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노년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작품 속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의 모든 사물들 역시 죽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투영되어 비춰진다. 질병과 노쇠는 이런 불안감을 더욱 강화시켜 삶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는 노년기에 들어와 20년 가까이 생리적 현상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불구적 신체로 아내에게 의존해 살아왔다. 오랜 투병 생활에서 ‘그’의 성격은 지독히 고립적

27)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진수 역, 2005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열린책들, 서울) 544쪽.

28) 작가 오정희는 병마와 고독으로 노년의 삶과 죽음에 직면하며 살았던 부모님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죽음 특히 노년의 죽음의 의미를 인식해 나갔던 것이다.

으로 변해 갔으며, 아내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일상적 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그’와 ‘아내’의 노년의 삶은 죽음과 공존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 뿐이다.

또한 「동경」과 같이 이 작품에도 노년의 죽음과 관련해 여러 상징물이 등장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의 상징을 들 수 있다. 아내가 며칠 전 시장에 갔다 오면서 따라온 검은 개는 죽음과 관련된 상징물이다. 개는 대체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로 인식된다.²⁹⁾ 개가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사유 형태의 한 변형에서 의미가 생성되었다.

집에 들어온 검은 개는 땅을 파기 시작하고 땅을 파면 초상이 난다는 속설 때문에 ‘그’는 검은 개를 두려워한다. 아내가 외출하자 검은 개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장롱 틈에서 죽은 쥐를 찾아내 물어뜯는다. 죽어서 부패해 버린 쥐 형상은 ‘그’가 반신불수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자신을 표상하며, 개의 그런 모습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한다. ‘쥐’ 역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쥐의 사체가 방안에서 심하게 악취를 내는 것은 죽음의 냄새이기도 하다. 노년 문학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는데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냄새이다.³⁰⁾ 노년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현대 사회는 위생적 잣대로 비정상성으로 간주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얼굴 옆에 떨어졌을 때 그는 으윽 비명을 질렀다. 쥐였다. 죽은 지 오래지 않은 듯 완전히 굳지 않은 몸이 방바닥에 패대기쳐질 때마다 둔탁하고 탄력 있는 울음을 내었다. 그는 쥐를 물고 달아나는 개를 향해 손에 잡히는 대로 리모컨을 들어 내던졌다. 재빨리 몸을 피한 개는 방 가운데에 앉아 쥐를 물고 뜯었다. 비로소 개는 조용해지고 씹는 일에 몰두한다. 악취의 진원지는 사라졌다.

2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2006 『앞 책』, 27쪽.

30) 대표적으로 문순태, 2004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문학사상사, 서울)가 있다.

인간 유기체의 부패, 즉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종종 나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 이런 냄새들을 현대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냄새에 대한 고도의 민감성을 주입해 놓아 노년의 죽음 과정을 사회 안에서 격리시켜 놓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쥐’에게서 뿜어 나오는 악취는 거동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에게서 풍기는 냄새로 연결된다. 이는 작품 속에서 “사물이 만들고 있는 분위기와 이미지를 통해서 삶의 분장된 죽음의 모습을 철저히 묘사해” 낸 것으로서, “삶 속에 은밀하게 비집고 들어와 생성되는 죽음의 모습으로서 삶과 죽음의 동시성 내지는 공존”³¹⁾을 나타낸다. 죽음의 문턱에서 있던 ‘그’가 아내가 외출하여 돌아오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보이며 외롭게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보통 죽음에 대한 반응은 병의 종류, 성격, 성, 문화와 생활환경 등 개인에 따라 다르며, 죽음의 과정에 보편적인 단계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³²⁾ 이 작품에서 ‘아내’는 자신의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 ‘그’와는 대조적으로 노년의 삶 속에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나간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려서 헤어졌던 생모와 과거 어느 날 생모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기억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이 마흔에 양젓물을 마셔 자살을 기도했다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실제 자신의 죽음 체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내’의 이런 경험들은 남편에 비해 죽음을 비교적 인생 주기의 통합적 관점으로 담담히 수용해 나가게 한다. 아내 역시 신체적 노화로 인해 난청을 가지고 있고, 성대도 온전치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주 가는 시장에서 집까지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몇 시간 동안

31) 성현자, 1989 「오정희 소설의 공간성과 죽음」 『인문학지』 제4집, 80쪽.

32) Corr, C., and Balk, D. 1996, Handbook of adolescent death and bereavement.(New York: Springer Publish Company.)(김수영 외, 2009 『앞 책』, 239쪽 재인용)

해매는 등 노인성 건망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온전치 못한 노년의 몸을 가지고 20년 간 반신불수의 남편을 돌보는 일에 충실했고, 남편마저 목소리를 잃게 되자 ‘거센 바람 소리, 목썬 거위 울음’ 같은 목소리로 남편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내’는 남편인 ‘그’에 비해 질병의 정도는 덜 하지만, 오래 전 죽었다던 수양 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불완전한 정신을 가지고 외출을 감행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40년 동안 죽은 존재로 알고 있던 아내의 수양 언니가 생존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작품 속에서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실제 상황인지 아내의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노부부의 일상적 삶에는 아내의 불안한 외출을 제지할만한 주변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아래 인용에서 보듯 늙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왕성한 식욕과 건망증’으로 표현하고, 젊은이들과 같은 육체가 정상적이고 ‘세월의 흔적을 각인’한 노인의 육체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젊음’과 ‘성장’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늙음·추함’, ‘소멸’의 모습으로 인식되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두 번째 인용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년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연민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노년의 육체를 타자화한 서술자의 시각임을 알 수 있다.

늘 가는 동네 시장 통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잃어 서너 시간을 헤맨 적도 있었다. 방안에도 치우기를 잊어버린 먹다 남긴 과일이나 과자부스러기가 널려 있다. 깊은 밤에 눈을 뜨면 흐린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튀긴 강냉이를 와삭와삭 먹어대거나 날 무 따위를 벗겨 먹는 데 열중한 모습은, 고독하고 둥글게 살진 몸은 슬퍼 보였다.

된 밀가루 반죽처럼 어깨로부터 무겁게 흘러내린 살이 기이하게 굵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나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처럼 겹겹이 다리 위에 늘어져 있다. 오십 년에 걸친 일상적인 노동과 생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쉬지 않

고 충실히 천천히 진행되어 온 것들이 각인한 세월의 흔적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 보듯 노년 각 개인은 전체적인 자신의 상황과 그 이전에 선택한 삶의 내용에 따라 죽음과 자신과의 관계를 선택한다. 부르디외 역시 근대 사회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방식이 개인의 아비투스³³⁾에 따라 다를 수 있음³³⁾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작품 속 노부부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개인화된 사회의 죽음 이미지가 분명히 드러내며 외롭고 고독한 죽음의 극단적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런 모습 속에는 서구 사회에서 몸을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외부 세계를 분리시켜 인식하는 ‘몸의 개별화 현상’³⁴⁾이 목격되며, 죽음에 직면해 몸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결미 부분에 이르면 ‘그’가 죽음으로 들어서는 과정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고 ‘그’의 죽음은 홀로 비극적 상황에 놓인다. 이런 노년의 죽음 이미지는 작품 속에서 날아가는 집, 동물 상징들, 사물 묘사 등으로 어둡고, 우울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창출하며 죽음의 현대 사회적 상황들을 나타낸다. 또한 노부부 사이엔 간헐적인 몸짓 언어 외엔 죽어가는 자들의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기본적 대화도 부재하다. 남편은 말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손상된 성대로 남편에게 하는 말조차도 홀로 넘겨 리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들 노부부의 일상적 삶은 죽음의 기운으로 정적만 맴돌 뿐이다. 그들은 노년의 일상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죽음을 고독하게 맞는 현대 사회의 노년의 모습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다.

33) 크리스 실링, 1999 『앞 책』, 265쪽.

34)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살아있는 몸과 죽어가는 몸 사이의 경계를 강화하고 ‘몸의 개별화’를 강조하면서 조직되어 있다. 그리하여 죽음은 개인적 사건으로 축소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있다.

4. 맺음말

현대 사회에서 인간 삶의 동물적 측면인 죽음은 공적인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며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정희의 「동경」과 「얼굴」에 나타난 노년의 죽음 문제에도 현대 사회 이전에 발견되는 공동체적이고 집합적인 상징들과 의식으로 둘러싸인 죽음의 양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작품 속 노년들은 죽음의 단계에 이르러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 문제에 개인적 고립 정서를 표출하며 고독하게 죽어간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다른 존재들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는 경험을 인간의 보편적 한계 상황으로 여기며, 은폐된 개인적 경험으로서 죽음을 인식해 나간다.

작품 속에서 노년들은 견디기 힘든 무료한 일상에 숨어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하며 자신들과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단절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노년의 일상적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죽음을 직시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불안의식만을 강하게 표출한다. 이런 노년의 모습들은 오늘날 산업화 사회가 나이가 들고 허약해진 노년을 사회로부터, 나아가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로부터 더욱 격리시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작품 속 노년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개인들의 노화 정도나 질병, 성별, 과거의 죽음 경험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적 자세로 드러난다. 이들은 대부분 죽음이라는 사건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불안, 혐오감, 파멸감, 거부, 부정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준다. 반면에 자신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으로 죽음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이고 삶을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그들 자신과 진정으로 타협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얼굴」에 등장하는 ‘아내’의 경우는 살아온 환경과 과거의 죽음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 삶 속에서 죽음 문제를 비교적 담담하게 수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두 작품에 나타난 노년들 모습 속에서 노년의 삶이 죽음으로 완성되며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얻게 된다는 인식은 단초적으로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작품 전반에 걸쳐 작가 오정희가 부모님에 대한 노년의 죽음 기억을 문학적 기억으로 하여 노년의 죽어가는 과정을 개인적 실존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소외된 노년과 고독한 죽음의 문제를 강하게 환기시켜 나갔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수, 2004 「널길 위의 존재들-오정희 소설의 노인들」 『시각』61
- 김수영 외, 2009 『노년사회학』(학지사, 서울)
- 김인옥, 2000 「죽음과 재생의 미학-오정희론」 『숙명어문논집』3
- 박혜경, 2011 『오정희 문학 연구』(푸른사상, 서울)
- 변학수, 2008 『문학적 기억의 탄생』(열린책들, 파주)
- 서혜경, 2009 『노인죽음학개론』(경춘사, 서울)
- 성현자, 1989 「오정희 소설의 공간성과 죽음」 『인문학지』4
- 심재호, 2011 「하이데거 철학으로 본 오정희의 「동경」 연구」 『국어국문학』
- 오정희, 1999 「얼굴」 『작가세계』(세계사, 서울)
- 윤애경, 2007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1-2
- 우찬제 엮음, 2007 『오정희 깊이 읽기』(문학과 지성사, 서울)
- 이인복, 2002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예림기획, 서울)
- 이지영 · 이가옥, 2004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24-2
- 장소진, 2007 「내쳐진 노년, 떨칠 수 없는 노년」 『현대문학이론과 비평』37
- 전홍남, 2011 『한국현대노년소설연구』(집문당, 서울)
- 정경희 · 한경혜 · 김정석,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영미, 2006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비극적 인식의 담론」 『우리문학연구』26
- 최원식 외 엮음, 2007 『20세기 한국소설-오정희 <동경>』(창작과 비평사,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2006 『한국문화상징사전1』(두산동아, 서울)
- 노베르트 엘리아스, 김수정 옮김, 2011 『죽어가는 자의 고독』(문학동네, 서울)
- 에릭슨 외, 한성열 편역, 2000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학지사, 서울)
- 시몬느 드 보부아르, 홍상희 · 박혜영 옮김, 1994 『노년1.2』(책세상, 서울)
- 지그문트 프로이트, 2005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열린책들, 서울)
- 크리스 쉘링, 임인숙 역, 1999 『몸의 사회학』(나남출판사, 서울)

<Abstract>

The Issues of Old Age and Death presented in
<The Bronze Mirror> and <The Face> by Oh Jung Hee.

Park, Sunae* · Kim, Cheongseok**

Talks and thoughts on death has been prohibited in the daily life of contemporary society. Such practice is not exceptional to the discourse of old age. Separated and excluded from the daily life is the idea of death, as with the case of being old today. The present study looks into how the death is conceived along with the old age, through the analysis of two novels ‘The Bronze Mirror’ and ‘The Face’ written by novelist Oh Jung Hee. The novels come from her memories on how her own parents led later life in loneliness and ill health till the death. The novels embodies writer’s view on how the elderly people relates their everyday life in the end to the death based on her own parents. The elderly people in the novels die lost their connection to the world expressing emotion of loneliness. Their attitude toward death somewhat differ by their age, health status, gender as well as their experience in other’s death in the past. It is hard to find that they understand their life and death as it is. They, noticing the shadow of death from the unbearable ennui of old age, are still excluded and separated from the social connection surrounding them. They fail in reaching to release their anxiety about death and understand it.

* Population and Society Studies Center, Research Fellow

**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of Sociology

주제어: 노년의 죽음 (death and old age), 노쇠 (senility), 고독 (loneliness), 불안의식 (anxiety about death), 기억 (memory)

투 고 일:	2013년 1월 18일
심사완료일:	2013년 2월 3일
게재확정일:	2013년 2월 15일